

제약協,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와 협업

# 중앙亞 제약한류 전파한다

양국 제약산업 발전 MOU체결  
우즈벡, 제약산업 유치 팔걸어  
의약품시장 연평균 6% 성장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와 손을 잡는다.

협회는 오는 14일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와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협회와의 MOU에 이어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 다림바이오텍, 경동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국내 제약기업들과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최근 우즈벡은 제약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우즈벡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한국 기업들의 우즈벡 투자진출(제조소 및 연구소) 및 원료의약품, 벌크 수출 지원 ▲기업 간 무역·투자·파트너사 지원 ▲진출 시 장벽 파악 및 해결방안 제안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개최 지원 ▲양국 정보교류 활성화 조항 등에 대한 협업을 약속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국의 협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우즈벡의 의약품 인허가와 전반적인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제약산업발전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우즈벡 의약품 시장 현황과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즈벡과의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어렵사리 압둘라예브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회장을 모신 만큼 설명회에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그 동안 우즈벡과의 협업을 위해 꾸준히 교류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에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우즈벡 의약품 시장은 약 6조원 대 규모로 지난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는다. 우즈벡 정부는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기업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베이코리아 흥윤희 이사(좌), 휴먼스케어 장민후 대표 /이베이코리아

## 옥션-휴먼스케어

# 환자 커뮤니티 플랫폼 '연계' 헬스케어 상품 정보 등 제공

이베이코리아는 자사가 운영하는 옥션이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어와 '옥션-휴먼스케어 환자 커뮤니티 플랫폼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 이베이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베이코리아 기업커뮤니케이션팀 흥윤희 이사와 휴먼스케어 장민후 대표 등이 참석해 양사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옥션케어플러스와 휴먼스케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옥션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휴먼스케어 커뮤니티에서도 소개한다. 또한 공동 마케팅, 헬스케어 상품 정보 교류 등 환우 커뮤니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션은 국내 오픈마켓 최초 장애-실버용품 전문관인 '케어플러스'를 운영하며 국내 25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 만성질환 및 장기간요양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정보가 부족해 구매가 어려웠던 의료기구나 장애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장애용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스타트업들의 판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동휠체어를 전동으로 바꿔주는 전동키토 '토도드라이브', 점자 스마트워치 '닷워치'를 발굴, 소개했

다. 지난해 발달장애용품 코너도 신설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비장애인이 경계없이 입을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류 '모카썸위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휴먼스케어'는 개인 건강기록서비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난치, 희귀질환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제약사, 연구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환자들에게 데이터 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회사다.

이베이코리아 기업커뮤니케이션팀 흥윤희 이사는 "장애용품의 경우 동료 환우-장애인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휴먼스케어의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커뮤니티 서비스에 잠재력이 높다고 본다"며 "환우-가족들의 정보 참여를 통해 장애-실버용품 시장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먼스케어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케어랩스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 X가 개발한 클레이튼의 의료분야 첫번째 공식 파트너로 합류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갱년기 여성 위한 '포에버 퀸' 출시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CJ제일제당이 여성 갱년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포에버퀸'을 출시하고, 신제품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에버퀸'은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신체·정신적 건강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CJ제일제당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4065세대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에버퀸'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에버퀸 토탈케어'와 뼈와 관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포에버퀸 액션케어' 두 가지다.

'포에버퀸 토탈케어'는 갱년기 여성이 가장 큰 고민으로 꼽는 고민인 홍조, 불면, 피로, 두통에 탁월한 화화나무열매추출물로 만들었다. 화화나무열매추출물은 식약처에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료 기능성을 인

증 받았으며, 갱년기 기능성에 대해 국내외 총 8가지 특허를 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다. 또한 인체시험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 평가지수인 '쿠퍼만 지수'가 개선된 점도 검증됐다.

CJ제일제당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화화나무열매추출물에 대한 철저한 연구분석을 8년 이상 걸쳐 100% 식물성으로 만든 '포에버퀸 토탈케어'를 선보였다. 특히 기존 여성 갱년기 건강식품과 달리 출시된 제품 중 유일하게 제형의 모양을 잡아주는 부형제 또한 해조갑썬, 목화씨유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 등 100%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부재료로는 당귀추출물, 발아발효콩추출물, 은행잎추출물, 카모마일 추출물, 세인트존스스위트 등을 활용했다. 여기에 항산화에 좋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을 함유한 'CJ석류초발효물'을 더했다. 'CJ석류초발효물'은 CJ제일제당이 축적한 발효기술을 통해 만든 소재다.

'포에버퀸 액션케어'는 골밀도, 관절,



연골 등 종합적인 뼈 건강과 에너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대두이소플라본, 식이유황, 비타민B2 등을 주 원료로 사용했으며, 생강버드나무추출물 등을 부원료로 넣었다. 이 제품은 '포에버퀸 토탈케어'와 함께 섭취시 전체적인 여성 갱년기 건강관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한편 여성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200억원 규모로 홍삼, 달맞이꽃종자유 등의 유지류, 석류 농축액, 백수오 등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증받은 화화나무열매추출물의 기능성과 100% 식물성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용기자 parkiu7854@

# 건강검진기관, 3번 연속 '미흡'뎀 지정 취소

이제부터 3번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준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

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정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비위생 업체 2곳 적발

브레드어클락과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 제조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렌타인데이(14일)를 맞아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천호엔케어 배우 김병철 '아이키썬' 모델 발탁

천호엔케어가 새롭게 출시하는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아이키썬'의 모델로 드라마 'SKY캐슬'에서 차민혁 교수로 열연을 펼친 배우 김병철을 발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철은 연일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며 인기리에 종영된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 극중 로스쿨 교수이자 쌍둥이 아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로 '야망의 화신'으로 불렸던 차민혁 교수로 열연을 펼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에서 김병철은 아내와 두 아들을 타박하는 권위적인 가장이지만 가끔씩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모로 남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광고영상에서는 자녀의 키 성장과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천호엔케어의 건강기능식품 '아이키썬'이 소개되며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주요 특

징을 유머러스한 스토리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영상에서 김병철은 자녀에게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큰 사람이 아닌 '키가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여 재미를 선사한다. 김병철은 '맛있게 큰사람 만드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아이키썬'을 소개하며 친근하고 코믹한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천호엔케어 관계자는 "2019년 새롭게 선보이는 천호엔케어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아이키썬'의 출시를 맞아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김병철 씨를 모델로 발탁해 기존 드라마의 캐릭터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친근한 반전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